

# 동사 ‘보다’의 연구

- 시각 동사와 인지 동사로서의 특성을 중심으로 -

이수련\*

|| 차례 ||

- I. 들어가기
- II. 동사 ‘보다’의 의미론적 특성
- III. 시각 동사와 인지 동사의 통사적 차이
- IV. 나가기

## 【국문초록】

지각 가운데 가장 고차원에 속하는 동사 ‘보다’를 중심으로 의미·통사적인 특성을 살펴본다. ‘보다’는 시각 동사에서 인지 동사로 확장되는데, 이것은 구체적인 뜻에서 추상적인 뜻으로 확장되는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통사 구조도 홀문장에서 겹문장으로 복잡해지면서, 겹문장은 부사마디, 명사마디, 인용마디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곧 사람이 생각이 복잡해짐으로써 표현 방식도 더 복잡해진다는 점에서 의미와 형태적 유연성을 찾아볼 수 있다.

주제어 : 시각 동사, 인지 동사, 부사마디, 명사마디, 인용마디, 유연성

---

\* 동의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I. 들어가기

‘보다’의 연구는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연구로 크게 나누어진다. 먼저 본용언으로서 ‘보다’는 어휘적인 뜻(lexical meaning)을 지니는 것으로서, 본래 시각 동사에서 출발해서 인지 동사로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시각 동사와 인지 동사로서 ‘보다’가 의미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통사 구조도 달라지는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시각 동사로서의 ‘보다’가 인지 동사로 확장됨으로써 ‘보다’의 특성이 의미적·통사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동시에 이 연구는 시각 동사와 인지 동사의 구문에서 의미 구조와 통사 구조가 유연성(motivation)이 있음을 밝히게 될 것이다. 이 현상은 언어 표현도 사고가 복잡해짐으로써 통사 구조도 다양해진다는 것으로서, 보이지 않는 인지 구조와 보이는 형태 구조의 관련성을 보일 것이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서 ‘보다’의 특성을 의미적인 면과 통사적인 면으로 나누기로 한다. 먼저 의미적인 특성은 먼저 시각 동사와 청각 동사의 의미적 관련성과 시각 동사에서 인지 동사로 의미가 확장됨을 통하여 시각 동사와 인지 동사와의 의미적 관련성을 밝힌다. 다음 인지 동사로서 ‘보다’의 명제적 특성을 통하여 ‘보다’의 의미적 특성을 살핀다.

다음 통사적 특성은 홑문장과 겹문장으로 나누어서, ‘보다’를 꾸미는 부사어의 특성과 ‘보다’를 중심으로 하여 이 서술어 앞에 오는 다른 명사항과의 구조관계를 통하여 밝히고자 한다.

‘보다’의 연구는 그동안 본용언보다는 보조용언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곧 보조용언으로서 ‘보다’를 중심으로 한 문법적인 뜻(grammatical meaning)을 밝힌 연구를 보면 ‘보다’는 ‘추측, 시행, 시험, 짐작’의 뜻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본용언에도 찾아볼 수 있다<sup>1)</sup>. 본용언으로서

‘보다’는 시각 동사라는 점에서 원형을 찾을 수 있고, 이에서 확장되어 인지 동사로 확장되면 ‘추측’의 뜻이 있음이 확인된다.<sup>2)</sup> 이는 본용언이 시각 동사에서 인지 동사로 확대됨에 따라서 ‘추측’의 뜻이 생긴 다음, 보조용언에도 영향을 미쳐 ‘추측’의 뜻이 남아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럼 이 글에서는 본용언으로서 ‘보다’를 대상으로 하여, 시각 동사에서 인지 동사로 확장됨에 따라 두 ‘보다’가 의미·통사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밝힌 다음, ‘보다’의 의미 구조와 통사 구조가 유연성이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 II. 동사 ‘보다’의 의미론적 특성

### 1. 시각 동사와 청각 동사의 의미적 관련성

일반적으로 감각(sensation)은 지각(perception)의 전 단계에 해당한다. 보기 들면 ‘딴다’라는 지각은 손이나 몸 같은 신체를 통한 촉각이라는 감각에 의해서 실현된다. 그래서 감각은 외부 세상의 사상에 대한 등록을 포함

1) 보조용언으로서 ‘보다’를 중심으로 한 문법적인 뜻을 밝힌 연구를 들면, 최현배(1982:402)는 동사와 형용사로 나누어서, 보조동사는 해보기 도움움직씨(시행 보조동사), 보조형용사의 경우는 (1982:532-534) 미룸 도움그림씨(추측 보조형용사)으로 설명했다. 최근에는 호광수(2003:50-51)는 1차적 의미로서 ‘-아/어 보다, -고 보다, -다(가) 보다’는 시행, ‘-나 보다, -ㄴ(은,는)가 보다, -(으)려나 보다, -(으)르까 보다’는 ‘추측’의 문법적 뜻이 있음을, 2차적 의미로서 ‘-아/어 보다’는 ‘경험’, ‘-고 보다’는 ‘결과’, ‘-다(가) 보다’는 ‘지속’, ‘-(으)르까 보다’는 ‘의지’의 뜻을 갖는다고 밝히고 있다. 고영근·구본관(2008:102)은 시행의 의미를 갖는 보조동사로서는 ‘(-어/아) 보다’, 짐작의 의미를 갖는 보조동사로서는 ‘(-어/아) 보이다’, 양태와 관련되는 것들(2008:104)로서는 추측의 의미를 갖는 보조형용사 ‘(-ㄴ,가, -는가, -나) 보다’를 들고 있다.

2) 본용언으로서 ‘보다’의 연구는 한국어 교육에서 어휘 습득을 위한 동사의 활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하는 데 반해, 지각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하는 방식을 포함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각은 감각이 탐지한 것에 대해 의미를 붙이는 과정(이재식 옮김 2009:99)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감각은 일차적으로 감각기관의 구조와 생리적 활동, 그리고 일반적인 감각 수용기의 활동과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지각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라는 오각이라는 감각을 통해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는 행위이다. 이 가운데 ‘시각(vision)’은 ‘감각’의 한 종류로서 감각은 상위어, 시각은 하위어로서 상하관계를 이룬다.

또한 시각은 청각과 관련이 많아서 두 감각의 공감각 표현이 시 같은 문학 작품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 (1) 흠여지는 푸른 종소리

위 시는 김광균 시 ‘와사등’의 한 구절인데, ‘종소리’라는 청각을 ‘흠여지는 푸른’이라는 시각으로 바꾼 것으로서 청각의 시각화가 일어난 공감각 표현이다. Ullmann도 공감각의 확장 방향을 ‘촉각→온각→미각→후각→청각→시각’으로 보는데, 낮은 차원의 감각에서 더 높은 차원의 감각으로 이 행된다고 본 것이고(남성우 옮김 1979: 286-315), Williams(1976:463)도 시각과 청각이 고차원의 단계에서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이수련 2009:192 참조). 시각과 청각의 관련성은 일상 언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 (2) 지금 태국은 홍수 때문에 시끄럽다고 본다.

(2)는 일상 언어로서 '시끄럽다'라는 청각이 '보다'로 시각화되고 있는 표현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시각과 청각은 문학뿐만 아니라 일상 언어에서도 관련성을 찾을 수 있는데, 의미 확장의 경우도 청각 동사는 시각 동사와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곧 청각 동사에서 인지 동사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럼 청각 동사의 경우는 '듣다'를 중심으로 인지 동사 '보다'와의 관련성을 살펴기로 한다.

(3) ㄱ. 내가 어젯밤에 빗소리를 들었다.

ㄴ. 중국은 영토 확장에 대한 야망이 크다고 듣고 있다.

(3)은 모두 '듣다'가 온 표현이지만, (3ㄱ)은 청각 동사이고 (3ㄴ)은 인지 동사로서 후자는 '평가되다'로 바뀌어 볼 수 있다.

(4) 중국은 영토 확장에 대한 야망이 크다고 {듣고 있다 → 평가되고 있다}

(4)는 완전 동의문은 아니지만, 문맥에 따라서는 '듣고 있다'가 '평가되고 있다'로 치환이 가능하므로 이때 '듣다'도 인지 동사로 해석된다.

지금까지 시각 동사와 청각 동사가 단순한 지각 동사에서 인지 동사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았는데, 나머지 지각인 미각, 후각, 촉각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5) ㄱ. 나는 어린 나이에 인생의 쓴맛을 맛보았다.

ㄴ. 형사는 그가 범인임을 냄새 맡았다.

ㄷ. 그녀는 나라의 최고 권력자를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다.

(5)에서는 미각 동사인 ‘맛보다’는 ‘경험하다’, 후각 동사인 ‘냄새 맡다’는 ‘눈치 채다’, 촉각 동사인 ‘주무르다’는 ‘상대방을 마음대로 다루다’처럼 모두 인지 동사로 해석이 된다. 그러므로 (5)의 ‘맛보다’, ‘냄새 맡다’, ‘주무르다’는 모두 감각 동사에서 인지 동사로 확장되었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또한 ‘보다’와 ‘듣다’는 감각 동사에서 인지 동사로 확장되어 치환이 가능할 때도 있다.<sup>3)</sup>

- (6) ㄱ. 나는 삼성을 좋게 보았다  
 ㄴ. 나는 삼성을 좋게 들었다.

(6)의 ‘보다’와 ‘듣다’가 인지 동사로 해석될 경우 둘은 치환이 가능하다. 그런데 (6ㄱ)은 ‘판단하다’로 바꿀 수 있지만 (6ㄴ)의 ‘듣다’는 어색하다. 이 ‘판단하다’는 어떤 사태의 상황을 이해한 다음, 그것에 대한 결정을 포함하는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데 (6ㄱ)은 ‘판단하다’로 바꿀 수 있지만 (6ㄴ)의 ‘듣다’는 어색하다.

- (6') ㄱ. 나는 삼성을 좋게 {보았다 → 판단했다}.  
 ㄴ. 나는 삼성을 좋게 {들었다 → ?판단했다}.

(6' ㄱ) ‘보다’는 ‘판단하다’로 바꿀 수 있지만, (6' ㄴ)의 ‘듣다’는 ‘판단하다’로 바꾸면 어색하다. 이것은 ‘보다’의 경우 말할이가 직접 확인한 내용이

3) 거리는 객관성이나 사유와 결부되고, 근접은 주관성, 친밀성, 정서와 결부된다. 시각과 청각은 대상과 먼 감각이고, 미각과 촉각은 감각 대상과 실제로 접촉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E.E. Sweetser 1990:61).

기 때문에 '판단하다'로 치환이 가능하지만, '듣다'는 간접적으로 알게 되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판단하다'로 바꾸면 어색하다. 이런 현상은 안은 문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7) ㄱ. 지금 미국은 경제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ㄴ. 지금 미국은 경제가 어렵다고 듣고 있다.

(7)은 모두 [지금 미국은 경제가 어렵다.]라는 안건 마디를 내포하는 안은문장인데 주어는 생략되어 있다. 그런데 (7ㄱ)은 주체가 직접적으로 확인하여 추론하는 내용이라면, (7ㄴ)은 주체가 뉴스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은 내용을 토대로 간접적으로 추론하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보다'의 주체가 대상이나 사태를 받아들일 때, '듣다'에 비해서 말할이가 더 직접 확인하여 인지한다는 점에서는 차이를 찾을 수 있다.

## 2. 시각 동사와 인지 동사로서 '보다'의 의미 확장 양상

이 장에서는 가장 고차원에 속하는 지각이면서 우리 일상 언어에서 가장 가까운 지각인 시각을 나타내는 동사 '보다'를 중심으로 하여 이 시각 동사와 인지 동사의 의미적인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본래 '보다'는 대상을 지각하는 시지각(visual perception) 동사이다. 그런데 이 시지각 동사에서 명제에 대한 말할이의 생각이나 판단을 내포하는 인지 동사로 확장된다<sup>4)</sup>고 볼 수 있다.

본래 낱말은 구체적인 뜻에서 추상적인 뜻으로 확장됨으로써 추상화가

4) 영화 아바타에서는 'I see you.'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이때 'see'는 '사랑한다'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영어에서도 'see'가 시각 동사로서 '보다'가 인지 동사 '사랑하다'로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어나는데 의미의 확장은 이 유형에 속하는 것들이 많다. 이는 공간적 지식(spatial knowledge)에 토대로 한 것으로서, 이는 심상으로 저장될 수 있는 공간적 관계에 관한 지식(박권생 옮김 2007:214)에서 기인한다.

(8) ㄱ. 나는 그림을 본다.

ㄴ. 우리는 영국 사람을 신사로 본다.

(8ㄱ)의 ‘보다’는 타동사로서 시각 행위의 대상인 ‘그림’을 본다는 뜻으로서 시지각 동사이다. 그런데 (8ㄴ)의 ‘보다’는 대상인 ‘영국 사람’을 ‘신사’로 ‘판단하다’, ‘여기다’로 해석 가능하므로 이때의 ‘보다’는 인지 동사로 볼 수 있다<sup>5)</sup>. 이 때 ‘인지(cognition)’란 정신적 처리과정(mental process)으로서, 임지룡(1997:14)에서는 ‘인지란 지각한 내용에다 주체적 해석을 부여한 것을 말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인지 과정을 나타내는 동사류를 인지 동사라고 부르고, 이것은 ‘인간이 심리적으로 받아들이는 일련의 사태 파악이나 사물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하여 이를 언어로 표현하는 언어 형식(변정민 2005:55)’을 일컫는다.

(9) ㄱ. 나는 그림을 {판단하다/\*여기다}.

ㄴ. 우리는 영국 사람을 신사로 {판단하다/여기다}.

‘보다’를 ‘판단하다’, ‘여기다’로 바꾸어 보았을 때, (9ㄱ)은 모두 성립하지 않지만 (9ㄴ)은 모두 성립한다. 전자처럼 ‘판단하다’, ‘여기다’가 성립하지

5) 변정민(2005:64)은 인지 동사의 보기로서 ‘보다, 여기다’ 밖에 ‘가정하다, 깨닫다, 사고하다, 알다, 추측하다, 이해하다, ...’ 따위를 보기들로 들고 있다. 또한 변정민(2005:64)은 ‘보다’의 주된 의미는 시각적 특성이지만, 감각에서 인지까지 영역의 쓰임이 넓기에 인지의 의미를 지니는 경우, 인지 동사의 영역에 포함할 수 있다고 본다.

않으면 시각 동사, 후자처럼 모두 성립하면 인지 동사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시각과 인지 동사의 중간 단계 정도로 해석되는 보기들도 있다. '보다'가 구체물을 보는 단계에서 대상물이 시간화로 추상화되어 확대되는 보기가 이에 해당한다.

(10) ㄱ. 너의 장래를 보고 결정하마.

ㄴ. 그 회사의 미래를 보고, 투자를 했다.

(10)은 말할이가 대상물 '장래', '미래'를 본다는 표현으로서, '시간'을 본다는 표현은 그 대상이 구체물에서 시간이라는 추상물로 확장된 것이다. 그러므로 (10)은 추상적인 시간을 지각하여 시각화하는 표현이므로 '시간의 시각화'로 부를 수 있고, 이는 달리 말하면 '추상물의 시각화'라고도 볼 수 있다. 이때 '시간의 시각화'에 오는 '보다'는 '시간'이 추상물이므로 시각 동사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때의 '보다'를 인지 동사로 보기도 어렵다. 이 또한 (10)의 '보다'를 '판단하다', '여기다'로 바꾸어 보기로 한다.

(11) ㄱ. 너의 장래를 {판단하고/\*여기고} 결정하마.

ㄴ. 그 회사의 미래를 {판단하고/\*여기고}, 투자를 했다.

(11)은 '보다'를 '판단하다', '여기다'로 바꾸어 보았는데, '판단하다'는 가능하지만 '여기다'는 비문이다. 이 경우 '판단하다', '여기다'가 다 성립하면 인지 동사이지만, (11)처럼 '판단하다'는 성립하지만 '여기다'로 치환이 되지 않으면 시각 동사와 인지 동사의 중간 단계 정도로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시간과 관련된 '보다'는 시각과 인지 동사의 중간 단계로서, 시각·인지 동사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시각 동사 ‘보다’가 인지 동사로 확장되는데, 또한 중간 단계로서 시각·인지 동사를 설정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 3. 인지 동사로서 ‘보다’의 명제적 특성

사람은 눈으로써 구체적인 사물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단계에서 대상과 관련된 어떤 사태에 대한 판단으로 확장해서 인지한다. ‘보다’도 그 대상이 구체물에서 추상물로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인지 동사가 취하는 대상은 명제 형태가 확장되므로, 이 명제가 성립하는 특성을 알아봄으로써 인지 동사로서 ‘보다’ 문장의 의미론적 특성을 밝혀 보고자 한다.

첫째, 인지 동사로서 ‘보다’는 명제에 안긴 마디를 취함으로써 확장되는데, 이때 말할이는 ‘보다’가 취하는 안긴 마디의 내용을 추측한다는 점이다. 이 ‘추측’은 ‘보다’가 문법화된 보조용언에도 나타난다(이 논문 ‘들어가기’의 보조용언 연구 참조). 그러므로 명제에 오는 내용은 확실치 않다는 특성이 있는데, 이 명제 내용도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내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객관적인 명제가 오는 보기부터 보기로 한다.

(12) ㄱ. 철수는 학교에 있다고 본다.

    ㄴ. 그는 회사원이라고 본다.

(12) 두 표현에 오는 명제인 [철수는 학교에 있다.], [그는 회사원이다.]는 불확실한 사태로 기술되어 있지만 객관적인 판단으로 진위가 가려질 수 있는 객관적인 명제이다. 이때 서술어 ‘보다’에 오는 명제의 때때김에도 제약은 없다.

- (13) ㄱ. 지금 밖에 눈이 온다고 본다.
- ㄴ. 그때 서울에 눈이 왔다고 본다.

(13ㄱ)은 안긴 마디 [지금 밖에 눈이 온다.]는 현재에서 하는 추측이고, (13ㄴ)은 안긴 마디 [그때 서울에 눈이 왔다.]는 현재의 시점에서 하는 과거 추측이다. 또한 '보다'는 미래에 대한 추측도 가능하다.

- (14) ㄱ. 내일은 추위가 풀릴 것으로 본다.
- ㄴ. 다음은 우리 차례가 될 것으로 본다.

(14)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명제, [내일은 추위가 풀릴 것], [다음은 우리 차례가 될 것]과 같은 명제에 대한 추측을 실현한다. 지금까지로 볼 때 '보다'는 과거, 현재, 미래의 추측이 모두 다 가능하며, 이때 명제는 불확실한 사태가 온다는 특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인지 동사로서 '보다'의 명제적 특징은 [[객관적 명제]+추측]으로 도식화가 가능하다.

다음 인지 동사로서 '보다' 문장의 명제에 주관적인 추론이 오는 보기들이다.

- (15) ㄱ. 그 일은 야당이 잘못했다고 본다.
- ㄴ. 국가가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본다.

앞의 (12-14) 보기들은 객관적 사태에 대한 말할이의 추측이라면, 예문 (15)는 어떤 사태에 대한 말할이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주장을 담고 있으므로, 다음처럼 해석할 수 있다.

- (16) ㄱ. [그 일은 아당이 잘못했다.]고 본다  
 ㄴ. [국가가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본다

위 두 문장에서 (16ㄱ) [아당이 잘못했다.]는 말할이의 판단, (16ㄴ) [국가가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표현 등으로서 명제 내용에 대한 말할이의 주장이 들어있는 주관적인 명제로 해석 가능하다. 곧 명제는 주관적인 판단이나 주장을 요구하는 사태로서 말할이는 이를 추론하는 것이므로, 위 문장은 [[주관적 명제]+추론]으로 도식화할 수 있다. 추론은 추측과 비슷하지만, 추측은 객관적 명제에 대해서 말할이가 미루어 판단하는 것이라면, 추론은 주관적 명제에 대해서 자기의 판단이나 주장을 들어서 더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추론이라고 해서 구별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서 '보다'에 오는 명제는 객관적 추측뿐만 아니라 주관적 추론(epistemic inference)으로 확대되는 특성을 보인다<sup>6)</sup>

둘째, 상위 동사인 '보다'가 완료상으로 실현될 때는 그 명제의 반대 사태가 참이 되기도 한다.

- (17) ㄱ. 딸이 대학에 합격할 것으로 보았다.  
 ㄴ. 대통령이 부산에 올 것으로 보았다.

(17)의 두 명제는 이루어지지 않은 사태들로서, (17ㄱ)은 명제인 [딸이 대학에 합격하다.], (17ㄴ) [대통령이 부산에 오다.]는 거짓(false)으로서, 두 문장은 명제에 대한 반대 사실이 참(truth)이 된다. 그러므로 아래의 명

6) 추론은 아이디어들 간 관계가 진술되지 않았을 때, 그 관계를 수립하는 인지 과정(박권생 옮김 2007:404)이며, '추론'이란 옳다고 상정되는 기존의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지식을 이끌어내는 절차이다. ... 추론에는 연역적 추론, 귀납적 추론, 사례 바탕 추론, 가설 추론, 퍼지 추론 등의 종류가 있다(임지룡 외 3인 공저 2004:228)고 볼 수 있다.

제 둘은 모두 참이다.

- (18) ㄱ. [딸이 대학에 불합격했다.]
- ㄴ. [대통령이 부산에 오지 않았다.]

그런데 '보았다'를 '보다'로 바꾸어 보면 명제는 사태의 반대가 아니라, 앞에서 살펴본 어떤 사실에 대한 말할이의 추측으로 나타난다.

- (19) ㄱ. 딸이 대학에 합격할 것으로 본다.
- ㄴ. 대통령이 부산에 올 것으로 본다.

(19)는 현재형 '보다'가 와서 불확실한 사태를 객관적으로 추측하는 내용으로 바뀐다.

지금까지 인지 동사에 오는 명제의 의미적 특성을 살펴보았는데, 인지 동사로서 '보다'가 현재형으로 실현될 때는 문장의 명제에 대해서 추측 또는 추론하는 내용이고, 그렇지 않고 완료상으로 실현되는 경우에는 그 명제와 반대의 뜻을 실현한다.

### Ⅲ. 시각 동사와 인지 동사의 통사적 차이

#### 1. 부사어의 차이

'보다'가 시각 동사와 인지 동사로 실현되는 경우, '보다'를 꾸미는 부사어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다음은 '보다' 문장에 부사어가 온 보기들이다.

(1) ㄱ. 이 집은 거실이 넓게 보인다.

ㄴ. 나는 그를 착하게 본다.

(1ㄱ)의 ‘보다’는 말할이가 구체물인 거실을 바라보는 표현이므로 시각 동사이고<sup>7)</sup>, (1ㄴ)의 ‘보다’는 ‘판단하다’, ‘여기다’로 치환이 가능한 인지 동사이다. 그런데 이 두 표현은 모두 부사어 ‘넓게’, ‘착하게’의 수식을 받고 있고, 이들 부사어들은 본래 형용사 어근에 부사형어미 ‘-게’가 와서 된 어형들이다.

그런데 위 두 표현에 오는 형용사의 의미적인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이 장에서는 부사어의 특성을 통해서 시각 동사와 인지 동사의 차이를 밝혀보기로 한다.

먼저 시각 동사로서 ‘보다’의 앞에 오는 부사어의 특징을 찾아보기로 한다.

7) 먼저 ‘보다’의 사전적 의미를 보기로 한다.[민중 대사전] ‘보다’는 5개의 품사로 나타나는데, 타동사, 보조동사, 보조형용사, 부사, 조사 따위이다. 이 글에서는 타동사인 보다<sub>1</sub>을 대상으로 한다.

**보다1** 【타동사】

1. 사물의 모양을 눈을 통하여 알다. / 2. 알려고 두루 살피다. / 3. 구경하다. 눈으로 즐기거나 감상하다. / 4. 보살피어 지키다. / 5. 일을 맡아서 하거나 처리하다. / 6. 누려서 가지다. / 7. 시험을 치르다. / 8. 팔거나 사려고 장으로 가다. / 9. 값을 부르다. / 10. 똥·오줌을 누다. / 11. 몸소 당하다. / 12. 참고 기다리다. / 13. 좋은 때를 만나다. / 14. 자손을 낳거나 며느리·사위를 얻어 들이다. / 15. 남의 계집이나 사내를 몰래 사귀다. / 16. 음식상이나 잠자리를 채비하다. / 17. 운수 등을 점치다. / 18. 어떤 목적 아래 만나다. / 19. 어떤 결과에 이르다.

**보다2** 【보조동사】

1. 동사 어미 ‘-어’·‘-아’·‘-여’ 뒤에서 시험 삼아 하는 뜻을 나타내는 말.  
2. (‘보았자’·‘보았댜’의 꼴로 쓰여) 별수 없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

**보다3** 【보조형용사】 형용사나 동사의 어미 ‘-ㄴ가’·‘-는가’·‘-리까’·‘-을까’ 등의 뒤에서 추측이나 막연한 제 의향을 나타내는 말.

**보다4** 【부사】 한층 더.

**보다5** 【조사】 체언 뒤에 붙어서 둘을 비교할 때 쓰는 부사격 조사.

- (2) ㄱ. 가을 하늘이 높게 보인다.  
 ㄴ. 이 집은 거실이 넓게 보인다.

(2)는 시각 동사를 꾸미는 부사어 '높게', '넓게'는 본래 형용사 '높다', '넓다'의 부사형들로서, 이들은 척도 형용사에 해당한다. 척도 형용사란 사물의 외형적 상태가 어떠함을 나타내는 특징이 있는데, 이들의 또 다른 보기로는 '넓다/좁다', '길다/짧다', '크다/작다', '많다/적다', '두껍다/가볍다', '빠르다/느리다', '세다/여리다' 따위를 들 수 있다<sup>8)</sup>. 그러므로 척도 형용사에서 온 부사형은 시각적으로 대상의 외형적 상태를 꾸미게 되고, 이 부사어의 꾸밈을 받는 '보다'는 시각 동사로 분류된다. 왜냐하면 이 부사어는 구체적인 사물이 어떻게 보이는가를 수식하기 때문에, 이 꾸밈을 받는 '보다'도 시각 동사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인지 동사로서 '보다'에 오는 부사어의 특징을 보기로 한다.

- (3) ㄱ. 나는 우리 대학의 총장님을 유능하게 본다.  
 ㄴ. 나는 그를 착하게 본다.

(3)의 '보다'는 어떤 대상이나 사태에 대한 판단을 담은 인지 동사로서, '판단하다' 또는 '여기다'로 바꿀 수 있다. 이 인지 동사를 꾸미는 형용사는 어떤 사물이나 사태의 내부적 속성이 어떠함을 드러내는 평가 형용사이다. 이 평가 형용사는 앞에서 살펴본 시각 동사를 꾸미는 척도 형용사와는 다르다. 이에 해당하는 평가 형용사의 다른 보기들로는 '좋다/나쁘다', '아름답다/추하다', '쉽다/어렵다', '부지런하다/게으르다', '선하다/악하다', '유능하다/무능하다' 따위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평가 형용사에서 파생된 부

8) 임지룡(1992:111-115)에서는 척도형용사를 공간 감각어라고도 부른다.

사의 꾸밈을 받는 ‘보다’는 평가나 판단과 관련이 있는 인지 동사에 속한다.

그런데 ‘보다’가 ‘판단하다’, ‘여기다’로 치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보다’와 ‘판단하다’, ‘여기다’가 오는 두 문장의 뜻이 완전히 같다고는 할 수 없다. ‘보다’는 ‘판단하다’ 류보다도 판단을 보류하여 단정적인 뜻을 피하려는 의도가 더 숨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보다’는 모두 말할이가 자신감이 없거나 또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심리 기제를 드러내는 표현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 다음은 신문기사에서 ‘~처럼 보이다’가 온 예문인데, ‘보다’는 단독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처럼 보이다’로도 많이 쓰이고 있다.

중앙일보 칼럼만 보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그런 주장을 한 것처럼 보인다.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의 2011년 10월 31일자 34면 <안철수의 선동 바이러스> 칼럼의 일부분)

위 예문에서 ‘~처럼 보이다’는 요즘 현대인들이 자주 쓰는 ‘~인 것 같다’와 비슷해서, 이 표현으로 치환이 가능하다. ‘~인 것 같다’는 자기의 판단을 보류한 표현으로서, 책임감을 회피하려는 현대인의 심리를 엿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처럼 보이다’도 ‘판단하다’, ‘여기다’보다도 상대적으로 자신감이 더 부족할 때 하는 표현으로 해석된다. 이로 볼 때 인지 동사로서 ‘보다’는 ‘판단하다’ 또는 ‘여기다’로 치환이 가능하지만 말할이의 태도가 자신감 없이 표출하는 표현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시각 동사와 인지 동사의 특성을 부사어를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척도 형용사에서 파생된 부사의 꾸밈을 받을 때는 시각 동사이고, 평가 형용사에서 파생된 부사의 꾸밈을 받을 때는 인지 동사로 해석된다. 이 때 인지 동사로서 ‘보다’는 ‘판단하다’, ‘여기다’와 치환은 가능하지만, ‘~처럼 보이다’로 많이 쓰이면서 자신감 없이 자신의 판단을 보류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 2. 문장 구성의 차이

시각 동사와 인지 동사의 차이는 문장의 구조에서도 차이가 난다. 먼저 '보다'가 시각 동사로 실현되는 흘문장에서는 '주어+목적어+서술어'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다음 '보다'가 인지 동사로 확장되면 흘문장과 겹문장 두 가지로 실현되므로, 흘문장, 겹문장의 문장 구조 순서로 살펴하기로 한다.

먼저 인지 동사가 오는 흘문장을 보면 '주어+목적어+부사어+서술어'의 형식을 취하는데, 이때 부사어는 'N-로'의 형태를 취한다.

(4) ㄱ. 나는 그림을 본다.

    ㄴ. 우리는 영국 사람을 신사로 본다.

(4ㄱ)의 '보다'는 시각 동사이고, (4ㄴ)의 '보다'는 인지 동사이며, 부사어 '신사로'가 필수 요소이다. 따라서 (4ㄴ)에서 '신사로'는 필수 요소이므로 이 부사어가 생략되면 인지 동사에서 시각 동사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다.

(5) ㄱ. 우리는 영국 사람을 신사로 본다.

    ㄴ. 우리는 영국 사람을 ∅ 본다.

(5ㄱ)의 '보다'는 인지 동사이지만 이 문장에서 부사어 '신사로'가 생략되면 (5ㄴ)처럼 시각 동사로 바뀐다. 그러므로 (5ㄱ)의 경우 'N-로' 부사어는 필수 요소에 속한다. 그런데 (4)의 두 문장은 모두 흘문장이라는 공통점이 있다<sup>9)</sup>.

다음 인지 동사로서 ‘보다’가 겹문장으로 실현되는 경우 ‘보다’는 상위문 동사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 이때 ‘보다’ 구문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 (6) ㄱ. 우리는 영국 사람을 정직성에서 높게 본다.
- ㄴ. 우리는 영국 사람을 신사라고 본다.
- ㄷ. 우리는 영국 사람이 정직할 것으로 본다.

예문 (6)은 모두 안긴 마디를 안은 겹문장들이다. 예문 (6)에서 ‘보다’가 상위문 동사가 되는 문장의 구조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sup>10)</sup>.

- (7) ㄱ. 우리는 [영국 사람이 정직성에서 높-]게 본다.
- ㄴ. 우리는 [영국 사람이 신사이-]라고 본다.
- ㄷ. 우리는 [영국 사람이 정직하-]리 것으로 본다.

(7)의 ‘보다’는 모두 겹문장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 가운데 (7ㄱ)은 부사마디, (7ㄴ)은 인용마디이다. (7ㄷ)은 [영국 사람이 정직할 것]이라는 명사마디를 안은 문장인데, 이 명사마디 안에는 [영국 사람이 정직할-]이라는 관형마디와 ‘것’이라는 보문명사(head noun)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7)에서 문장들은 부사마디, 인용마디, 명사마디는 안긴 마디이고, 이

9) 홑문장의 경우, ‘우리는 이 사태를 충분히 보았다.’에서도 ‘충분히’라는 부사어가 오지만, 이때 ‘충분히’는 ‘보다’만을 꾸미는 임의요소이다. 이 글에서는 부사어가 필수요소로서 기능하는 경우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

10) 겹문장의 경우, ‘보다’가 접속문으로 실현될 수도 있다. 이 경우는 홑문장이 둘 이상이 이어지는 문장으로서 홑문장의 구조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곧 ‘내가 보면, 한국은 경제 대국에 들었다.’에서 ‘내가 보면’은 접속문의 선행절이지만 홑문장의 구조와 다르지는 않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접속문은 따로 다루지는 않는다.

를 내포하는 안은 문장의 구조를 취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위 예문 (7)에서 '보다'는 상위문 주어 '우리'와 호응하는 상위문 서술어이다. 그럼 부사마디, 인용마디, 명사마디의 문장 구조 특성을 좀 더 자세히 차례로 살펴기로 한다.

첫째, 부사마디를 안은 겹문장의 구조부터 살펴기로 한다<sup>11)</sup>.

- (8) ㄱ. 영국이 좋게 보인다.
- ㄴ. 어머니가 짧게 보인다.

' 좋게', ' 짧게'와 같은 부사형은 형용사 ' 좋다', ' 짧다'에 부사형어미 '- 게'가 온 부사어들이다. 이 때 생략된 주체는 말할이이므로 (8)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 (9) ㄱ. (나에게) [영국이 좋-]게 보인다.
- ㄴ. (나에게) [어머니가 짧-]게 보인다.

(9)는 안긴 마디 [영국이 좋-], [어머니가 짧-]이라는 부사마디로 실현된 겹문장이다. 그리고 '나에게'는 표층에서 부사어이지만, 심층격(deep case)은 경험주(experiencer)로서 경험의 주체에 해당한다.

(9)는 피동문이고 능동문으로 바꾸어도 마찬가지다.

---

11)이 글에서는 부사마디를 인정하는 관점에서 어미 '- 게'를 인정한다. 고영근·구본관(2008:313)에서는 (가)진달래가 곱게 피었다. (나)진달래가 빛깔이 곱게 피었다. 두 문장에서 (가)는 부사어, (나)는 부사마디로 나누어서 구별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나)를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고영근·구본관(2008:314)에서는 '바깥이 잘 보이게 창을 활짝 열어라.'에서는 '바깥이 잘 보이게'는 종속적 연결어미로 볼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은 '- 게'를 부사꼴어미와 연결어미의 두 가지를 다 인정하는 처리 방식이다.

- (10) ㄱ. 내가 영국을 좋게 본다.  
      ㄴ. 내가 어머니를 젊게 본다.

(10)도 역시 [영국이 좋-], [어머니가 젊-]는 부사마디를 안은 문장 구조로 해석된다.

둘째, 인용마디를 안은 문장의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 (11) ㄱ. 난 너를 천재라고 본다.  
      ㄴ. 난 네가 잘 한다고 본다.

(11ㄱ)은 안긴 마디가 [너가 천재이-]이고, ‘라고’라는 인용조사가 온 인용마디와 같은 구조이고, (11ㄴ)은 안긴 마디가 [너가 잘 한-]이고, 이에 ‘고’라는 인용조사가 붙은 안긴 마디로 된 문장이다. 전체적으로는 인용마디를 내포하는 안은 문장으로 실현된 것이다. 그러므로 (11)은 모두 겹문장으로서 다음과 같이 안긴 마디를 안은 문장으로 분석 가능하다.

- (12) ㄱ. 난 [너가 천재이-]라고 본다.  
      ㄴ. 난 [네가 잘 한-]고 본다.

위 문장의 짜임새도 [너가 천재이다.], [네가 잘 한다.]라는 안긴 마디에 ‘보다’라는 상위문의 서술어가 온 구조이다. 그러므로 (12)를 인용문이라고 보면 안긴 마디는 인용마디에 해당하고, ‘-고’는 인용조사로서 이때 ‘보다’의 뜻은 인지 동사이지만 그 기능은 인용동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11)의 ‘보다’ 겹문장과 인용마디는 통사론적 특성은 같지만 의미론적으로 보면 약간 차이가 있다. 곧 ‘보다’ 겹문장은 말할이가 그의 판단을

안긴 마디로써 표현한다면, 인용마디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판단을 안긴 마디로써 인용한다는 점이다.

- (13) ㄱ. 성호는 [일본이 올림픽 때문에 지금 시끄럽다.]고 본다.
- ㄴ. 성호는 [일본이 올림픽 때문에 지금 시끄럽다.]고 말했다.

(13ㄱ)은 서술어가 '보다'로 실현되는 인지 동사이고, (13ㄴ)은 '말하다'로 실현되는 인용 문장이다.

셋째, 명사마디를 안은 문장 뒤에는 조사 '으로'가 성립한다.

- (14) ㄱ. 한국은 일본을 능가할 것으로 본다.
- ㄴ. 영국 사람은 친절할 것으로 본다.

위의 두 표현은 모두 조사 '으로'가 온 것으로서 '으로'의 앞에 온 명사구는 보문명사이다. 그러므로 (14)는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 (15) ㄱ. ∅ [[한국이 일본을 능가하-]ㄹ]것으로 본다.
- ㄴ. ∅ [영국 사람이 친절하-]ㄹ]것으로 본다.

(15) 문장들은 관형마디 [한국이 일본을 능가하], [영국 사람이 친절하]에 보문명사 '것'이 와서 명사마디가 된 겹문장이다. 그러므로 조사 '로'가 오는 문장의 구조를 홑문장과 겹문장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는데, 홑문장에서는 부사어로, 겹문장에서는 보문명사를 만들어 주는 기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시각 동사와 인지 동사가 오는 문장의 통사적인 특징을 살펴

보았다. 시각 동사인 ‘보다’로 실현되는 흘문장은 ‘주어+목적어+서술어’로 실현되고 다음 인지 동사로서 ‘보다’ 문장은 흘문장과 겹문장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흘문장은 ‘주어+목적어+부사어+서술어’로 실현되고 이때 부사어는 ‘로’로 실현된다. 겹문장의 경우 ‘보다’는 상위문 서술어이고, 안긴 마디는 부사마디, 인용마디, 명사마디로 실현되고, 조사는 ‘로’, ‘고’, ‘라고’ 따위로 실현되는 특징이 있다.

#### IV. 나가기

이 논문에서는 지각 가운데 가장 고차원에 속하면서 우리 일상 언어에서 많이 쓰이는 동사 ‘보다’를 대상으로 하여, 시각 동사와 인지 동사로서의 차이점을 의미적인 특징과 통사적인 특징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시각 동사와 청각 동사는 지각 동사에서 인지 동사로 확장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후자인 인지 동사에 속하는 ‘보다’는 청각 동사인 ‘듣다’보다 더 직접적인 경험을 전제로 한다.

<2> 인지 동사로서 ‘보다’에 오는 명제의 특징은 ‘보다’가 현재로 실현되면 안긴 마디에는 확실치 않은 사태가 오고, 말할이는 그 명제 내용을 추측 또는 추론하는 특징이 있다. 다음 ‘보다’가 완료상이면 그 명제 내용이 일어난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이 온다.

<3> ‘보다’의 특성을 부사어와의 관련성을 통해서 보면, 시각 동사로서 ‘보다’는 척도형용사에서 파생된 부사의 꾸밈을 받고, 인지 동사 ‘보다’는 평가 형용사에서 파생된 부사의 꾸밈을 받는다.

<4> ‘보다’ 문장의 짜임새를 정리하면, 시각 동사는 흘문장으로 실현되

는데 '주어+목적어+서술어'로 나타난다. 인지 동사로서 '보다'는 홑문장, 겹문장 두 형식으로 나타나는데, 홑문장은 '주어+목적어+부사어+서술어'로 실현되며 이때 부사어는 '로'로 나타난다.

겹문장의 경우는 안긴 마디와 안은 마디로 되어 있는데, 안긴 마디는 부사마디, 명사마디, 인용마디로 실현된다. 부사마디는 형용사 어근에 부사끝어미 '-게'가 와서 부사어의 기능을 한다. 다음 명사마디에는 관형마디에 '것'이라는 보문명사가 합쳐져서 겹문장의 구조이고 이때 '로'라는 부사격조사가 뒤에 온다. 다음 인용마디로 실현되는 경우는 서술어 뒤에 인용조사 '고', 라고가 온다.

사람이 생각이 복잡해지면 표현 방식도 복잡해진다는 관점에서 보면, '보다'도 시각 동사에서 인지 동사로 뜻이 확장됨으로써 통사 구조도 복잡해짐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보다'를 통해서 의미가 복잡해지면 형태도 복잡해진다는 유연성을 찾아볼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고영근·구본관,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2008, pp.102-104.
- 권재일, 『한국어 통사론』, 민음사, 1992.
- 남성우 옮김, 『의미론의 원리』, 탑출판사, 1929, pp.286-315.
- 박권생 옮김, 『인지심리학: 이론과 적용』, 시그마프레스(Stephen K. Reed. 2006. Cognition : Theory and Applications. Thomson Learning), 2007, p.214.
- 박선옥, 『국어 보조동사의 통사와 의미 연구』, 역락, 2005, pp.191-199.
- 변정민, 『우리말의 인지 표현』, 2005, p.55.
- 이수련, 『공감각으로 본 모양흥내말 연구-시각을 중심으로』, 한글 286, 한글학회, 2009, p.192.
- 임지룡, 『국어의미론』, 탑출판사, 1992, pp.111-115.
- \_\_\_\_\_, 『인지의미론』, 탑출판사, p.14.
- 최현배, 『우리 말본』, 정음사, 1982, p.402.
- 호광수, 『국어 보조용언 구성 연구』, 역락, 2003, pp.50-51.
- 辻辛夫 編, 『認知言語學キーワード事典』, 東京: 研究士, 2002.(임 지룡·요시모토 하지메·이 은미·오카 도모유키 옮김, 『인지언어학 키워드 사전』, 한국문화사, 2004, p.228)
- Eve.E. Sweetser, From Etymology to Pragma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p.61.
- Williams, J. M, Synaesthetic Adjectives: A Possible Law of Semantic Universals, Language 52(2), 1976, pp.461-478.

**Abstract**

## A Study of verb 'see'

- About Property of Vision Verb and Cognition Verb -

Li, Su-Lyon

This study researches a syntactic · semantic property of verb 'see' belongs to a most high dimension in perception. Vision verbs relate hearing verbs, these are expanded in common with perceptual verb to cognition verb. And 'see' expanding from concrete meaning to abstract meaning, is different in adverb, and syntactic structure are complicated simple sentences to complex sentences. Therefore complex sentences are composed variously adverb clause, noun clause, quotation clause. We can discover a motivation between meaning and form, according in expansion from simple thinking to complicated thinking mode.

Key Word : vision verb, cognition verb, adverb clause, noun clause, quotation clause, motivation, meaning, form.

이수련

소속 : 동의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주소 : (614-714) 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동 산24번지

전화번호 : 051-890-1210

전자우편 : slli@deu.ac.kr

이 논문은 2013년 11월 15일 투고되어  
2013년 12월 6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3년 12월 10일 게재 확정됨.